

고려청자 芙蓉紋의 도상적 기원과 그 의미

조은정*

- I. 머리말
- II. 부용의 속성과 부용문의 도상
- III. 고려청자 부용문의 유형과 제작 시기
- IV. 부용문 畫本의 유입과 상징성
- V. 맺음말

I. 머리말

고려청자의 花紋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도자사 연구에서 주요 연구 대상으로 다뤄지지 않았던 주제이다. 근래에 들어와서야 모란, 황촉규, 흰화, 물가 풍경 문양 등이 고려 12세기 전반 중국 서화의 유입과 당시 문화 경향을 보여주는 사회적 '표징'으로서 기능했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¹ 또한 관양이었던 海石榴華가 고려 11세기 후반부터 등장하여 불화, 사경, 향완 등 불교 미술에 주로 등장하면서 도자기에도 영향을 미친 사실과 함께 모란과 작약의 구분, 연화와 흰화의 특징 분석과 명칭 분류의 필요성을 제시한 연구도 발표된 것도 최근이다.²

이 글의 연구 대상인 부용문은 기존 연구에서 모란문으로 분류해 왔다. 꽃송이가 모란과 유사하지만, 꽃술, 꽃송이, 잎의 형태가 다르고 생장 환경과 개화 시기에서도 차이가 있으며,

* 고려청자박물관 학예연구사

1 김윤정, 「고려청자 문양의 詩·書적 요소와 도상의 독창성」, 『美術史學』 28 (2014), pp. 351-382.

2 조은정, 「청자 海石榴華 문양을 통해 본 고려시대 官樣의 형성과 유행」, 『美術史學』 48 (2024), pp. 263-292; 同著, 「고려 12세기 청자 화훼절지문과 송대 정요 자기의 영향」, 『東洋美術史學』 19 (2024), pp. 105-137.

중국과 우리나라 문헌 자료에도 많은 기록이 남아 있다. 궁궐 정원에 식재되거나 부용을 수놓은 장막이 연회에 사용되기도 했다. 부용문 청자는 대부분 품질이 좋고, 특수 기종에도 시문되었으며, 표현 방식은 당초문과 절지문 두 가지 형식이 있다. 부용문은 모란문의 표현 방식과 세부적으로 다르고, 각 형식마다 주로 사용하는 시문 기법에서 차이가 있으며, 그 결과 문양의 출현 배경과 유행 시기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고려청자에서 모란문 또는 보상화문으로 분류되었던 문양 중에 특정한 형태의 부용문이 존재했음을 규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모란과 다른 부용의 식물학적 속성과 도상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 부용문의 시문 기법과 형식을 분석하여 부용문의 제작 시기를 고찰하고, 부용문의 등장 배경과 상징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은 문양 연구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함과 동시에 고려 중기의 청자 제작 상황의 일면을 재구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II. 부용의 속성과 부용문의 도상

부용은 모란 못지않은 화려함으로 인해 중국 당대부터 정원 조경수로 식재되었으며, 문학 작품의 시제는 물론 공예품의 장식 문양으로도 널리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문양 연구에서는 부용에 대해 주목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먼저 부용이 갖고 있는 실제 식물학적 속성과 문양으로서의 부용문 도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1. 부용의 종류와 속성

부용은 원산지가 중국 하남성과 사천성 일대로, 높이가 3m까지 자라는 관목 식물이다(Fig. 1). 부용은 木芙蓉을 줄여서 부르는 명칭인데, 문헌 기록에는 목부용 외에도 ‘木蓮’, ‘拒霜花’, ‘地芙蓉’, ‘華木’, ‘柝木’, ‘文官花’, ‘轉觀花’, ‘四面花’ 등 다양하다. 부용은 원래 중국 고대에 연화를 의미했다.³ 그런데 당대가 되면 중국 남방 지역에서 자생하는 부용의 아름다움이 알려지

3 『詩經』「鄭風」, ‘山有扶蘇, 隰有荷華’; 郭璞, 『爾雅注疏』卷15, ‘荷芙蓉注, 別名芙蓉, 江東呼荷.’



Fig. 1. 〈부용 꽃송이와 꽃술〉 The Blossom, Stamen, and Pistil of Hibiscus Mutabilis (手机搜狐网, www.sohu.com)

면서 부용은 ‘목부용’ 또는 ‘목련’이라 명명하고, 연화는 ‘수부용’, ‘수련’으로 구분하였다.⁴ 모란을 작약의 이름을 따서 목작약이라고 한 것과 같이 목부용도 연화에서 이름을 빌려온 것이다.⁵ 한편 목부용을 줄여서 부용으로 기록한 문헌에서는 목부용의 부용인지, 연화를 뜻하는 부용인지를 문맥의 흐름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이규보가 왕사 坦然의 행서 글씨를 ‘부용이 못 가운데서 솟은 것과 같다’고 묘사했는데, 여기에서의 부용은 연화를 가리킨다.⁶

고려시대에 유행한 당악인 「취봉래」는 가을밤 아름다운 궁궐 풍경을 노래한 것인데, 여기에 국화의 노란 빛깔과 목부용의 붉은 빛깔이 언급되어 있다.⁷ 부용이 궁원을 장식하는 주요 화목 중에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부용은 줄기가 무성하고 큰 나무 형태로 자라기 때문에, 부용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 주변에 정자나 누각 건물이 있어야 했다.

당대 柳宗元이 806년에 지은 「巽公院五詠」 제4수에 「芙蓉亭」이 있고, 吳自牧이 남송 임안의 도성 풍경을 묘사한 『夢粱錄』에도 황궁 정원의 부용각이 기록되어 있다.⁸ 조선 초 경복궁의 상림원에도 대마도에서 보내온 목부용 세 그루와 양매목 한 그루가 심어져 있었다.⁹

4 白居易, 「木芙蓉花下招客飲」, 「晚涼思飲兩三杯, 召得江頭酒客來. 莫怕秋無伴醉物, 水蓮花盡木蓮開」; 李時珍, 『本草綱目』木3, 「此花豔如荷花, 故有芙蓉, 木蓮之名. 八九月始開, 故名拒霜」.

5 陳耀文, 『天中記』卷53, 「通志畧」云……今人, 貴牡丹, 而賤芍藥, 不言牡丹, 初無名, 依芍藥得名, 故其初曰木, 芍藥亦如木, 芙蓉之依芙蓉以爲名也」.

6 李奎報, 『東國李相國後集』卷11序「東國諸賢書訣評論序」에서 「皎如明月之撥雲, 粲若芙蓉之出池. 非謂脆弱兮如美婦人, 外若妍媚兮中以筋持」.

7 『高麗史』志卷25樂2唐樂醉蓬萊【慢】, 「漸亭卓葉下, 隴首雲飛, 素秋新霽. 華闕中天, 鎖蔥蔥佳氣. 嫩菊黃深, 拒霜紅淺, 近寶階香砌……」.

8 柳宗元, 「巽公院五詠」4首「芙蓉亭」, 「新亭俯朱檻, 嘉木開芙蓉. 清香晨風遠, 溽彩寒露濃. 瀟灑出人世, 低昂多異容. 嘗聞色空喻, 造物誰爲工」; 吳自牧, 『夢粱錄』卷18「木芙蓉」, 「蘇堤兩岸如錦, 湖水影而可愛. 內庭亦有芙蓉園, 開時最盛. 潘紫岩詩云……」.

당대 劉兼이 만개한 붉은 부용을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비유할 정도로 부용의 대표적인 색은 붉은색이다. 가을을 대표하는 향기로운 국화도 부용 앞에서 부끄러워할 정도라고도 했다.¹⁰ 꽃송이가 흰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뀌는 醉芙蓉도 있는데, 중국 시문에서는 취부용을 일컬어 鴛鴦芙蓉, ‘添色拒霜花’, ‘弄色木芙蓉’, ‘花五色’이라고도 표현하였다.¹¹ 또한 노란색의 부용을 노래한 시도 있다. 북송대 문인인 梅堯臣은 「詠王宗說園黃木芙蓉」에서 고상하고 기품있는 아름다움을 표현했고,¹² 남송대 여류 詞人인 朱淑真도 「黃芙蓉」이라는 시에서 부용, 즉 輕黃이 당시 모란 중에서 최고 품종이었던 노란색의 요황 못지않다고 하였다.¹³ 조선 초에도 이승소는 궁궐 버들에 비친 밝은 햇살이 경황의 노란색을 빌려왔다고 하거나, 도성 거리의 버들이 목부용을 희롱할 정도로 아름답다고도 했다.¹⁴

부용이 다른 꽃들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가을에 서리를 맞으면서도 화려한 색의 꽃을 피우는 것이어서 拒霜花라는 이름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白居易는 목부용을 감상하며 ‘가을 하늘 높은 밤에 취할 것이 없을까 걱정하지 말라, 물속의 연꽃은 시들지만 목부용이 피어나고 있으니.’라고 노래했다.¹⁵ 고려의 李奎報(1169~1241)는 가을에 피는 부용이 맨드라미보다 먼저 시들어 버린다고 하였다.¹⁶

2. 부용문의 도상적 특징

회화에 그려진 부용은 화폭의 면적이 도자기보다 크기 때문에 실제 식물 부용의 모습을 그

-
- 9 『世宗實錄』世宗 29年(1447) 5월 19일, ‘己酉 對馬島 宗貞盛遣也老仇, 獻木芙蓉三株, 楊梅木株, 命植於上林園.’
- 10 劉兼, 「木芙蓉」, ‘素靈失律許風流, 強把芳菲半載偷. 是葉葳蕤霜照夜, 此花爛熳火燒秋. 謝蓮色淡爭堪種, 陶菊香濃亦合羞. 誰道金風能肅物, 因何厚薄不相侔.’
- 11 姚勉, 「醉芙蓉」, 宋祁, 「添色拒霜花贊」, 吳橫, 「种艺必用」[严璠, 「中国古代文学木芙蓉意象与题材研究」(南京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2021), p. 45].
- 12 梅堯臣, 「詠王宗說園黃木芙蓉」, ‘水中兼木末, 霜擬有佳花. 玉蕊坼蒸粟, 金房落晚霞. 涉江從楚女, 采菊聽陶家. 事與離騷異, 吾將寧以誇.’
- 13 朱淑真, 「黃芙蓉」, ‘如何天賦與芬芳, 徒作佳人淡竹妝. 試請東風一爲主, 輕黃應不讓姚黃.’ 严璠, 「中国古代文学木芙蓉意象与题材研究」(南京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2021), p. 43에서 재인용.
- 14 현재 ‘輕黃’에 대해 ‘연노란색 빛 또는 색깔’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남송대 황색 목부용의 시적 표현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李承召, 『三灘集』第2卷 詩「禁園柳」, ‘禦柳千株欲展眉, 禁垣深處正依依. 煙添嫩綠翠帷濕, 日借輕黃金纒垂.’; 『三灘集』第3卷 詩「聞成重卿任洪應之應與裏人輪辦賞春之宴戲呈」, ‘九街煙柳弄輕黃, 乳燕鳴鳩白日長……’
- 15 각주 4 참조.
- 16 李奎報, 『東國李相國後集』卷5 古律詩「次韻李百全學士復和雞冠花詩二首」, ‘……浮薄春紅那更言, 芙蓉秋發猶先死…….’

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도자기에서의 부용문은 도안화의 경향을 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본 식물 부용이 다른 꽃과 구분되는 특징은 (Fig. 1)에서 볼 수 있듯이 독특한 형태의 꽃술이다. 노란색의 암술 위로 수술 2~5개가 솟아 있는 모습인데, 이 수술의 형태가 고려청자에 음각이나 철화 기법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용의 세부 형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소장의 청자발우이다(Fig. 2). 줄기에서 좌우로 짧게 펼쳐진 잎은 끝이 둥글게 말려 있어서 실제 부용의 잎 모양과는 전혀 다르다. 수술을 강조해서 강조한 점은 실제 부용의 모습인 반면, 실제 꽃송이보다 큰 잎을 도자기에 시문할 때에는 그 형태를 도식화시켜 표현한 것이다.



Fig. 2. <청자음각부용당초문발우> Celadon Bowl with Incised Hibiscus Mutabilis Design, 12th Century, Koryŏ, D. 21,2cm, The Museum of Oriental Ceramics, Osaka (The Museum of Oriental Ceramics, Osaka, <https://www.moco.or.jp>; Outline of Design Drawn by the author)



Fig. 3. <청자양각모란부용투각연화문베개> Celadon Pillow with Lotus, Hibiscus Mutabilis, and Peony Design, 12th Century, Koryŏ, H. 11, 2cm, Excavated from Kaesŏng, National Museum of Korea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s://www.emuseum.go.kr>; Outline of Design Drawn by the author)

개성에서 출토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청자베개는 모란문과 부용문이 같이 시문되어 있다. 베개 측면에는 투각된 연화당초와 이를 둘러싼 용아혜초와 함께 양각 기법의 모란이 있고, 반원형의 베개 윗면에는 부용이 섬세하게 양각되어 있다(Fig. 3). 청자발우와 비교하면 꽃술

의 위치가 꽃송이 중앙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모란과 부용은 꽃송이 형태도 다를 뿐만 아니라 모란은 절지 형식으로, 부용은 당초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도상과 형식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에서는 구분을 시도하지 못한 채 문양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지 않거나 모란문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Fig. 4. <모란문과 부용문의 비교> A Comparison of the Peony and Hibiscus Mutabilis Designs; <청자압출양각모란절지문접시> Celadon Dish with Peony Design (Left), 12th Century, Koryŏ, D. 14.0cm, Excavated from Myŏngnyangdaech'ŏp-ro in Chin-do,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Heritage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Heritage, <https://www.seamuse.go.kr>); <청자압출양각부용문화형접시> Celadon Dish with Hibiscus Mutabilis Design (Right), 12th Century, Koryŏ, D. 17.3cm, Horim Museum (Horim Museum, <https://www.horimmuseum.org>)

전형적인 모란문과 부용문의 차이는 우선 잎 모양에서 차이가 있다(Fig. 4).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에서 출수된 청자접시의 모란문은 만개한 꽃송이와 줄기, 봉오리까지 포함된 가지 형태로 접시 내면에 가득 배치했다. 모란 잎은 실제 모란을 사생한 것과 같이 끝부분이 서너 갈래로 뽀족하게 갈라져 있다. 반면에 부용문은 내저면과 측면 전체에 여러 개의 부용 꽃송이와 넝쿨이 규칙적으로 조밀하게 구성되어 있다. 부용의 잎은 끝이 둥글게 처리된 작은 잎들이 꽃송이를 제외한 여백을 가득 채우고 있고, 꽃송이와 잎 윤곽선 안에 세선을 일률적으로 시문하는 것도 부용 문양에서 주로 보이는 특징이다.¹⁷

17 동일한 청자접시가 강진 사당리 요지와 개성 고려궁성에서도 출토되었다. 강진군민족문화유산연구원, 『강진 사당리 43



Fig. 5. <청자압출양각부용문완> Celadon Bowl with Hibiscus Mutabilis Design, 12th Century, Koryŏ, H. 6.2cm, D. 16.1cm, Excavated from Kaesŏng, National Museum of Korea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s://www.emuseum.go.kr>)

한편 호림박물관 소장의 청자접시와 함께 개성 출토품인 <청자압출양각부용문완>은 부용의 수술 표현이 생략된 대표적인 예이다(Fig. 5). 동일한 청자완 편이 개성 고려궁성에서도 출토되었는데, 번조받침이 내화토빛음인 것도 같다.¹⁸ 특히 호림박물관 소장 접시는 문양을 압출양각한 후 윤곽선을 정교하게 다시 음각하는 과정으로 제작된 것이다. 이러한 부용문의 접시와 완은 수술 표현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분 내화토 빛음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정황은 부용문에서 꽃술, 특히 수술의 표현 유무는 청자의 품질이나 제작 시기와는 큰 관련이 없으며, 부용이 시문된 청자는 비교적 고급품으로 생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고려청자 부용문의 유형과 제작 시기

부용문 청자는 대체로 품질이 높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도 단기간 내에 시문 기법과 번조 받침에 변화가 일어나고 문양이 간략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호 고려 청자요지 발굴조사 보고서』(2015), p. 255; 국립문화재연구소, 『개성 고려궁성 남북공동 발굴조사보고서 Ⅲ』(2020), p. 301.

¹⁸ 개성 출토 청자완과 동일한 도법으로 성형한 청자완 편이 고려궁성 1-7호 건물지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이 청자 편은 2007년 제2차 발굴조사에서 출토되었으나 발굴보고서에는 실려 있지 않고 만월대 사이트(<http://www.manwoldae.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부용문 청자의 종류와 시문 기법

부용문 청자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대체로 비색을 띠는 고급 청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내화도빛음이나 규석 받침을 사용한 용례가 많다. 기종은 화형발, 화형절요접시, 완을 비롯해 소형주자, 유병, 배개, 퇴주기, 발우, 통형병, 침형병, 정병, 표형주자, 매병, 호 등 특수 기형으로 분류되는 그릇에도 시문되었다. 시문 기법은 양각, 음각, 압출양각, 철화 기법이 사용되었다.

양각 기법은 문양 가장자리를 비스듬하게 깎는 片節彫의 음각 기법과 문양 안쪽에 세밀하게 선을 음각하는 기법을 병용했다(Fig. 6). 양각 기법의 부용문은 소형주자, 유병, 표형병, 표형주자, 배개 등에서 소량 확인할 수 있다. 압출양각의 부용문 역시 화형발, 화형절요접시, 완, 퇴주기 등에 한정되어 있으며, 전세품이나 요지출도품의 수량이 많지 않다. (Fig. 4)와 (Fig. 5)의 압출양각 부용문 청자는 개성 일대에서 수습된 전세품과 고려궁성에서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주요 소비층이 왕실과 상류층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기법에서는 부용의 꽃술 표현이 확인되지 않는다.



Fig. 6. <청자양각부용문표형병> Celadon Bottle with Hibiscus Mutabilis Design, 12th Century, Koryŏ, H. 8.8cm, Kumsung Cultural Foundation (Chosŏn kwanyo pangmulgwan, Ch'ŏngja ūi saek'yŏng, plate 36)



Fig. 7. <청자음각부용당초문침형병> Celadon Bottle with Incised Hibiscus Mutabilis Design, 12th Century, Koryŏ, H. 18.0cm, Private Collection (Chosŏn kwanyo pangmulgwan, Ch'ŏngja ūi saek'yŏng, plate 102; Outline of Design Drawn by the author)

Fig. 8. <청자철화부용문매병> Celadon Maebyŏng with Underglaze Iron-painted Hibiscus Mutabilis Design, 12th Century, Koryŏ, H. 28.2cm, The Museum of Oriental Ceramics, Osaka (The Museum of Oriental Ceramics, Osaka, <https://www.moco.or.jp>)

부용문의 주요 시문 기법은 음각 기법으로, 청자의 기종 또한 다른 시문 기법에 비해 다양하다. 화형발, 완, 접시, 퇴주기 외에도 소형주자, 유병, 발우, 매병, 통형병, 침형병, 정병 등이다 (Fig. 7). 청자발우와 비교하면 침형병의 부용문은 꽃술이 1개로 줄어들었고 병 몸체 네 곳에 둥근 형태로 시문되어 있다.¹⁹ 대부분의 음각 부용문은 수술 표현이 사라지는 대신 꽃술이 중앙에 타원형 3개가 하나의 꼭지점을 향해 모여있는 형태만 남아 있다. 철화 기법은 매병, 병, 호에서 소량 확인되는데, 과형 매병이나 구연이 넓은 호 등 특수한 기종도 있다. 철화 부용문의 경우에도 수술이 4개 또는 1개인 예도 있고, 대부분의 철화청자는 수술이 생략된 경우가 많다 (Fig. 8).



Fig. 9. <<청자부용문소형주자>>의 양각 기법과 음각 기법 비교> A Comparison of Carving and Incising Techniques in Small Celadon Ewers; <청자양각부용문주자> *Small Celadon Ewer with Carved Hibiscus Mutabilis Design* (Left), 12th Century, Koryŏ, H. 5.8cm, D. 2.1cm, Excavated from Kaesŏng, National Museum of Korea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s://www.emuseum.go.kr>); <청자음각부용문주자> *Small Celadon Ewer with Incised Hibiscus Mutabilis Design* (Right), 12th Century, Koryŏ, H. 4.2cm, D. 7.5cm, Cleveland Museum of Art (Cleveland Museum of Art, www.clevelandart.org)

부용문 청자 중에는 완, 소형주자, 유병 등 동일한 기종과 형태에서 다른 시문 기법이 사용된 예를 찾을 수 있다. 즉 양각과 음각, 또는 압출양각과 음각 기법이 같이 확인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시문 기법 간에 선후 관계에 있다고 보거나 또는 품질의 분화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일례로 소형 주자의 경우 정교한 양각과 윤곽선에 음각 기법을 병용했던 형태이지만,

¹⁹ 동일한 기형과 문양의 침형병이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과 V&A박물관에 각각 한 점씩 소장되어 있는데, 세 점 모두 번조 받침은 내화토빛음이다.



Fig. 10. <<청자퇴주기>>의 압출양각 기법과 음각 기법 비교> A Comparison of the Impression and Incising Techniques in Celadon Ritual Bowls; <청자압출양각부용문퇴주기> Celadon Ritual Bowl with Impressed *Hibiscus Mutabilis* Design (Left), 12th Century, Koryŏ, H. 7.8cm, D. 18.0cm, Horim Museum (Horim Museum, <https://www.horimmuseum.org>); <청자음각부용문퇴주기> Celadon Ritual Bowl with Incised *Hibiscus Mutabilis* Design (Right), 12th Century, Koryŏ, H. 9.7cm, Excavated from Kaesŏng, National Museum of Korea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s://www.emuseum.go.kr>)

음각 기법에서는 꽃송이가 커지고 꽃술 표현이 3개의 타원으로 대체되었다(Fig. 9).

또 다른 예는 청자퇴주기가 있다. 나팔형으로 벌어진 퇴주기의 구연에 부용을 압출양각하고 아래에 접합된 작은 호에 연관문을 조각한 것과 구연과 호에 모두 부용을 음각한 예가 비교된다(Fig. 10). 그런데 압출양각 기법의 퇴주기는 여러 전세품에서도 동일하게 번조받침이 내화토빛음인 반면, 음각 기법인 퇴주기는 대부분 규석 받침인 경우가 많다.²⁰ 또한 전세품 중에는 퇴주기의 아래쪽 작은 호 형태만 별도로 제작한 소호가 여러 점 전하고 있다.²¹ 따라서 적어도 퇴주기에서는 구연의 압출양각 부용문이 음각 부용문보다 선행하고, 하단의 호 문양 역시 양각 연관문이 음각 부용문보다 상대적으로 선행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용문의 형식은 당초 형식과 절지 형식 두 가지가 있는데, 두 형식은 대체로 시문 기법과 상관성이 있다. 당초 형식은 발, 완, 접시 등의 소형 기종을 비롯해 통형병, 매병 등 대형 기종에 이르기까지 위에서 본 네 가지의 시문 기법이 모두 확인된다. 반면에 절지 형식은 문양 자체가 세로로 긴 형태이기 때문에 주로 큰 기형에 음각과 철화 기법으로 시문되는 차이가 있

20 개성 출토품인 국립중앙박물관 덕수3342 청자퇴주기는 구연의 부용은 압출양각, 호의 부용은 양각이며, 번조 받침은 내화토빛음인 경우도 있다. 이 유물은 아래쪽 호에 초기에는 양각의 연관문에서 음각의 부용문으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21 이 형태의 유물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건희332이나 독일 쾰른동아시아박물관 소장품 F09.125의 청자음각부용문호가 있다.

다(Fig. 11). 그런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본관2008)의 경우 부용의 잎 모양이 모란 잎처럼 서너 갈래로 갈라진 형태인 경우가 있다. 문양 구성과 위치, 시문 기법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꽃송이와 잎 모양만 달리 표현한 것은 부용문의 도상을 고려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모란으로 치환한 결과로 생각된다.



Fig. 11. 〈청자철화부용문매병〉 *Celadon Maebyöng with Underglaze Iron-painted Hibiscus Mutabilis Design*, 12th Century, Koryö, H. 27.3cm, Excavated from Kaesöng, National Museum of Korea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s://www.emuseum.go.kr>)

Fig. 12. 〈청자음각부용문‘純美造付’명정병〉 *Two Celadon Kundikas with Incised Hibiscus Mutabilis Design*; Branch Pattern (Left), H. 30.0cm; Scroll Pattern (Right), H. 28.4cm; 12th Century, Koryö, National Museum of Korea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s://www.emuseum.go.kr>; Outline of Designs Drawn by the author)

같은 요장에서 한 사람의 장인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정병에 당초와 절지 형식의 부용이 각각 시문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Fig. 1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정병 2점은 굽 안바다에 ‘純美造付’ 네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모두 내화토 빛음 흔적이 남아 있다.²² 양각이나 압출 양각 기법의 부용문과 비교하면 수술 표현이 사라지고 꽃송이의 형태도 간략하다.

22 ‘순미가 만들어 바치다’라는 의미의 명문에서 ‘순미’는 왕실이나 사찰에 진공 또는 시주를 위해 청자 요장에 정병 제작을 주문 의뢰한 승려로 추정된다. 현재 ‘純美’와 관련해서는 1185년 예천 용문사중수비 음기에 열거된 祖應禪師의 제자중에 大德 純美가 있지만, 추후 면밀한 명문 연구가 필요하다. 「重修龍門寺記碑」, 嗣法弟子 …… 大師存正, 大德學連, 大德純美, 大德存永, 大德玄惠, 大德慧 ……」 고려시대금석문자료DB.

2. 부용문 청자의 제작 시기

고려 사회에 고급품의 부용문 청자가 언제부터 제작되기 시작했는지도 중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여러 부용문의 형태와 수율이 강조되는 문양은 11세기 후반 도자기가 아닌 석각 장식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원주 법천사 지광국사비는 제액 주변에 용화세계를 비롯하여 봉황, 해석류화, 용아혜초가 새겨져 있고, 비신 전면 테두리에는 앞에서 살펴본 부용당초문이 새겨져 있다 (Fig. 13). 끝이 둥글게 처리된 꽃잎과 가운데 3개의 수술이 길게 나와 있는 모습도 같다.



Fig. 13.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비>의 테두리 문양> The Fringe Design of the *Tombstone of Chigwang Kuksa in Pöpch'önsa Temple, 1085, Koryö* (Sungkyunkwan University Museum, <https://www.swb.skku.edu/museum>)



Fig. 14. <고려청자와 북송 여요 청자의 비교> A Comparison of Koryö Celadon and Ch'öngnyangsa Temple Ru Ware; <청자음각부용당초문발우> *Celadon Bowl* (Left), 12th Century, Koryö, H. 8.5cm, The Museum of Oriental Ceramics, Osaka (The Museum of Oriental Ceramics, Osaka, <https://www.moco.or.jp>; Outline of Design Drawn by the author); <청자인화용문발> *Celadon Bowl* (Right), Northern Song Dynasty, China, H. 7.2-9.6cm, Excavated from Ch'öngnyangsa Temple, Henan Antique Archaeology Institute (Henan sheng wenwu kaogu yanjiusuo, *Baofeng Qingliangsi ruyao*, p. 102, Color Plate 154)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소장의 또 다른 청자발우는 기형과 문양 구성에서 북송 청량사 여요 출토품과 매우 유사하다(Fig. 14). 청량사여요 출토품들은 내저면에 부용문이 아닌 용문을 인화 기법으로 시문한 점만 다를 뿐이며, 1086~1125년경에 제작된 것이다.²³ 이외에도 연화형향로, 화형완, 매병, 화형접시, 투합, 화형잔탁, 침형병 등에서 고려가 여요 자기를 모방해

제작한 시기는 12세기 1/4분기인 예종 연간(1106~1122)으로 보고 있다.²⁴



Fig. 15. <중국 월요와 요주요의 부용문> Hibiscus Mutabilis Designs of Yue Ware and Yaozhou Ware; <청유각화부용문분합> Celadon Case (Left), Northern Song Dynasty, China, Yue Ware, D. 11.7cm, Excavated from Zhejiang Cixi Zhangshu, Cixi Museum (Zhongguo taoxi quanji bianji weiyuanhui, *Zhongguo taoxi quanji* 8, Plate 31); <청유각화부용문퇴주기> Celadon Ritual Bowl (Right), Northern Song Dynasty, China, Yaozhou Ware, D. 21.0cm, Excavated from Shaanxi Lantian Lu Family Tomb No. 6, Shaanxi Academy of Archaeology (Beijing yishu bowuguan, *Zhongguo Yaozhouyao*, p. 114)

또한 꽃술이 표현되지 않은 (Fig. 5)의 부용문 형태는 중국의 여러 요장에서 생산한 청자, 백자, 녹유자기에서도 확인된다. 절강성 상림호 요지에서 생산한 청자합 뚜껑의 문양이나 정요백자 발의 내저면 문양과 흡사하고, 요주요 퇴주기의 경우에는 하단의 호에 연판문을 양각한 점까지 동일하다(Fig. 15). 부용문을 음각한 요주요 청자완이 개성 출토품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기도 하다.²⁵ 북송의 여러 요장 도자기와 고려청자가 비슷하다는 것은 1123년 고려에 온 서긍의 눈에도 인지되었기 때문에, 그가 고려의 청자가 정요 자기를 모방한 것이 많고, 나머지는 월요의 古祕色이나 여주의 新窯器와 유사하다고 기록한 것이다.²⁶

23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 『宝豊清凉寺汝窑』(大象出版社, 2008), p. 140.

24 이희관, 「고려 예종과 북송 휘종-12세기 초기의 고려청자와 여요 및 북송관요」, 『해양문화재』 8 (2015), pp. 157-231.

25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덕수1100, 덕수3405의 요주요 청자완이 대표적이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中國陶磁』(2007), pp. 88-89.

26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卷32 器皿3 陶尊, '陶器色之青者. 麗人謂之翡色. 近年以來, 制作工巧, 色澤尤佳. 酒尊之狀如瓜, 上有小蓋, 面爲荷花伏鴨之形. 復能作盤, 椀, 杯, 甌, 花瓶, 湯瓊, 皆竊放定器制度. 故略而不圖. 以酒尊異於他器, 特著之.'; 陶爐 '狻猊出香, 亦翡色也. 上爲蹲獸, 下有仰蓮, 以承之. 諸器, 惟此物, 最精絕, 其餘, 則越州古祕色, 汝州新窯器, 大槩相類.'

12세기 중반에 제작된 태안 대섬 출수품에도 부용문 청자가 포함되어 있다.²⁷ 압출양각 기법의 부용당초문 화형 발과 접시가 있는가 하면, 간략화된 음각부용절지문의 발, 접시, 발우도 같이 확인되었다.



Fig. 16. <송대 자주요와 고려청자 매병 비교> A Comparison of Maebyöng of Koryö Celadon and Cizhou Ware; <백유적화부용문매병> Maebyöng with White-glazed Sgraffito Hibiscus Mutabilis Design (Left), Song Dynasty, China, Cizhou Ware, H. 34.5cm, Excavated from Tangyin Henan, Henan Museum (Zhongguo taoxi quanji bianji weiyuanhui, *Zhongguo taoxi quanji* 7, Plate 203); <청자철화부용문‘華山’명매병> Celadon Maebyöng with Underglaze Iron-painted Hibiscus Mutabilis Design (Right), 12th Century, Koryö, H. 32.6cm, Excavated from Kaesöng, National Museum of Korea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s://www.emuseum.go.kr>)

국내외에 전하는 철화청자 문양도 대부분 부용문이다. 매병 어깨와 동체 하단에 S자형의 보조 문양을 두르고, 부용당초문을 가득 장식하거나 부용절지문을 시문한 것은 송대 자주요 자기와 동일하다(Fig. 16). 이러한 부용문은 관태 자주요 퇴적층위에서 2기 후단계(1101~1148)부터 3기(1149~1219)에 걸쳐 나타난다.²⁸ 고려의 철화청자는 당초문과 절지문이 형태가 점차 간략화되면서 꽃송이 형태도 사라지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을 완도 어두리

27 임경희, 「태안선 목간의 새로운 판독」, 『해양문화재』 4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 pp. 308-332; 이희관, 「泰安 대섬出水 高麗靑瓷의 製作時期 專論」, 『한국학연구』 68 (한국학연구소, 2019), pp. 165-201.

28 北京大學考古學系·河北省文物研究所·邯鄲地區文物保管所, 『觀台磁州窯址』 (文物出版社, 1997), p. 502.

해저 출수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철화청자의 제작 시기는 대체로 12세기로 보고 있으며, 그 하한은 1207년과 1208년의 목간이 확인된 태안 마도 1호선에서 반구병, 화분, 항아리에 매우 간략한 초화문 수준의 철화 문양이 시문된 것으로 보아 13세기 초로 비정할 수 있다.²⁹

이와 같이 부용문 청자의 기형과 시문 기법, 중국 자기와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보아 부용문 청자의 제작 시기는 12세기였음을 알 수 있다. 12세기 전반에는 양각과 압출양각, 정교한 구성의 음각 기법이 사용되다가 12세기 후반에는 간략화된 음각 기법과 철화 기법이 주로 구사되었으며, 철화 기법의 단순한 절지 형식으로 퇴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IV. 부용문 畫本의 유입과 상징성

부용과 관련된 문헌 기록이 많지 않은 고려 12세기에 부용문 청자가 제작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었고, 당시 중국과 고려 사회에서 부용에 어떠한 상징성을 부여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부용문 畫本 작성과 유입 경로

고려 미술품 중에 가장 앞선 부용문의 용례는 앞에서 본 1085년 법천사 지광국사비의 석각이다. 쌍룡과 운문 이외에 10세기 왕사나 국사의 비에서 볼 수 없었던 해석류화, 용아혜초, 봉황, 부용당초 등의 새로운 문양이 등장하는 것은 북송과의 교류를 통한 결과물로 해석할 수 있다.³⁰ 1071년 북송과의 국교가 공식적으로 재개되면서 중국 문화의 영향은 본격화되었다.

왕휘가 중서성과 추밀원에 물품을 보낸 것이 많자, 조서를 내려 시장에 맡겨 되도록이면 비단(緡帛)으로 바꾸어서 보답하도록 하였다. 또 왕휘가 표문을 올려 의약 및 畫工, 塑工들로 고려 사람을 가르치고자 구하니, 나중에게 조서를 내려서 (고려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도록 하였다.³¹

29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마도 1호선 수중발굴 조사보고서 I』 (2010), pp. 438-462.

30 지광국사비의 석각은 秘書省의 배용교위 李英輔가 刻字 과정을 감독하고, 도교서의 石匠인 張子春이 새겨서 1085년에 완성하였다. 조은정, 앞의 논문 (2024a), p. 275.

31 『宋史』 卷487 列傳246, ‘…… 徽問遣二府甚厚, 詔以付市易務售緡帛答之. 又表求醫藥·畫塑之工以教國人, 詔羅拯

병진년 겨울, 다시 최사훈을 사신으로 파견해 조공하였으며, 화공 및 사람을 대동하여 상국사의 벽화를 모사할 수 있도록 상주하여 청원함에 따라 조서를 내려 허락하였다. 이 때 다 모사해 돌아갔는데 모사하는 사람이 매우 화법에 뛰어났다.³²

고려의 문종은 1074년 북송에 김양감(金良鑑)을 사신으로 파견해 장인들을 보내 줄 것을 요청했고, 2년 후에 또 다시 사신 최사훈과 화공들로 하여금 중국 상국사의 벽화를 모사해 오도록 했다. 문종의 이 지시는 1068년 낙성시킨 홍왕사의 장엄을 위해 실시한 것이었고, 비슷한 내용이 『선화봉사고려도경』에 남아 있다.³³ 이러한 장인의 직접적인 상호 왕래와 모사를 통해 중국 단청 그림의 여러 화본이 고려에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Fig. 17. <중국 원대 자수 부용문> Embroidered Hibiscus Mutabilis Designs of the Yuan Dynasty; <봉황문자수> Embroidery with Phoenix Design (Left), Yuan Dynasty, China, 143.2×134.6cm, Metropolitan Museum of Art (Metropolitan Museum of Art, <https://metmuseum.org>); <화훼문자수> (세부), Detail of Flora Embroidery (Right), Yuan Dynasty, China, 64.1×149.5cm, Metropolitan Museum of Art (Metropolitan Museum of Art, <https://metmuseum.org>)

募願行者.’

32 郭若虛, 『圖畫見聞志』 卷6 「近事·高麗國」, 「丙辰冬, 復遣使崔思訓入貢, 因將帶畫工數人, 奏請摹寫相國寺壁畫歸國, 詔許之. 於是盡摸之持歸, 其摸畫人頗有精於工法者.」 한방인, 「북송시기에 있어 고려·일본과의 회화교류와 문화접면」, 『전북사학』 41 (2012), p. 275에서 재인용.

33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卷17 祠宇 王城內外諸寺, 「興王寺, 在國城之東南. 維出長霸門二里許, 前臨溪流. 規模極大. 其中, 有元豐間所賜夾紵佛像, 元符中所賜藏經. 兩壁有畫, 王顯嘗語, 崇寧使者劉達等云, 此文王謂徽也, 遣使告神宗皇帝, 模得相國寺本, 國人得以瞻仰. 上感皇恩, 故至今寶惜也.’

또한 고려는 국신물들을 여러 문양을 수놓은 붉은 비단 수건과 보자기로 덮거나 자루에 넣어 송에 보냈고, 이에 대한 답례로 북송에서도 1080년에 衣對, 錦綺, 衣著, 銀器 등을 보내왔다.³⁴ 당시 국신물을 포장한 자수 비단은 아마도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소장의 자수 비단과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Fig. 17). 중앙의 쌍봉문을 제외한 여백에 연화, 모란, 매화 등과 함께 부용도 함께 수놓아져 있다. 여기에서 줄기 끝에서 둥글게 말려 있는 넝쿨의 표현은 자수만의 특징이며, 실제 식물 부용이나 중국 도자기 문양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요소이다.

송대 화조화 역시 12세기 전반에 고려에 많이 유입되었다. 徽宗이 고려에 보낸 서화는 『태평예람도』 2권과 <추성훈락도>, <당십팔학사도> 등 총 16권에 달했다. <태평예람도>는 『선화화보』가 편찬되기 전에 황실에서 소장한 회화들을 기록한 화보집이다. 그런데 현재 『선화화보』 卷16 화조화 목록을 보면 당말~오대의 滕昌祐, 黃筌(?~965)과 그의 아들 黃居實가 그린 <芙蓉鸚鵡圖>, <芙蓉鳩子圖>, <芙蓉雙禽圖>, <芙蓉鸞鷲圖>, <折枝芙蓉圖>, <芙蓉睡鵝圖>, <拒霜花鴨圖>, <蟬蝶芙蓉圖> 등 부용을 주제로 한 그림들이 실려 있다.³⁵ 그렇다면 이 그림들 중 일부가 『태평예람도』에도 수록됐을 수 있고 이것이 고려에 전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송대 화조화는 당시 중국의 도자기는 물론 고려 도자의 문양에도 영향을 미쳤다. 예종은 궁성 내의 천장각과 안화사의 어서전에 휘종이 보낸 조서와 친필 서화를 보관하였다.³⁶ 휘종의 <부용금계도> 도상은 송대 정요 백자와 고려 철화청자에서도 찾을 수 있다(Fig. 18). 부용과 국화, 금계와 두 마리 나비라는 문양 요소가 모두 동일하다. 다만 정요 백자는 금계가 일반적인 새 모양으로 바뀌고 국화가 생략되었으며, 부용의 잎 역시 실제보다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다. 반면에 고려의 매병에서는 자수 부용문에 보이는 줄기 중간에 말려 있는 넝쿨이 있고, 줄기 맨 끝에는 여러 개의 부용 봉오리가 작고 동그랗게 매달려 있다. 국화는 매병의 어깨 부분으로 배치하여 문양 요소의 해체와 재조합이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

34 『高麗史』世家 卷9 文宗 26年(1072) 6月; 『高麗史』世家 卷9 文宗 34年(1080) 7月.

35 특히 등창우의 그림 65점 중에 21점에 달하는 화조화가 부용을 소재로 한 것이다. 『宣和畫譜』卷16 花鳥2.

36 『高麗史』世家 卷14 睿宗 12年(1117) 6月, ‘癸亥 命置天章閣于禁中, 藏宋帝所賜親製詔書, 及御筆書畫.’;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卷17 祠宇 靖國安和寺條, ‘……麗人, 以奎章睿藻在焉, 奉之尤嚴也. 今使者至彼, 率三節官屬從吏, 拜于御書殿下. 飯僧祈福, 日莫歸館, 實宣和五年七月二日癸丑也.’



Fig. 18. <부용금계의 도상 비교> A Comparison of Hibiscus Mutabilis and Golden Pheasant Designs; 徽宗, <부용금계도> Emperor Huizong, *Painting of Hibiscus Mutabilis and Golden Pheasant* (Left), Northern Song Dynasty, China, Color on Silk, 81.5×53.6cm, Beijing Palace Museum (The Palace Museum, <https://www.dpm.org.cn>); <백자회화부용문세> *White Porcelain Dish* (Center), Song Dynasty, China, Ding Ware, D. 12.0cm, Taipei Palace Museum (<https://www.gov.tw>; Edited by the author); <청자철화부용금계문매병> *Celadon Maebyŏng with Underglaze Iron-painted Design* (Right), 12th Century, Koryŏ, H. 28.9cm, Hoam Museum of Art (<https://www.leeumhoam.org>)

고려에서는 12세기 전반에 다량으로 유입된 중국 서화, 복식과 직물, 금은기의 문양을 화본으로 그려서 여러 공예품 제작에 사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용은 중국 당송대부터 회화뿐만 아니라 지수 장막의 주요 문양으로도 사용되었다. 부용에 대한 감상을 직접 노래한 詩詞 외에도 杜甫, 白居易, 溫庭筠 등이 지은 시에는 ‘芙蓉帶’, ‘繡芙蓉’, ‘芙蓉帳’과 같이 부용을 수놓은 띠 장식이나 장막이 자주 언급되어 있다.³⁷ 또한 당대 여성 道士의 복장에도 부용장과 작약꽃의 금비녀가 사용되었다.³⁸ 그런데 부용이 중국 남부 지역에 자생했기 때문에 북방 지역에서는 부용을 실견하면서 감상하기 어려웠고, 그로 인해 부용 문양을 수놓은 자수가 많이 제작될 수밖에 없었다. 사마광의 「和秉國芙蓉五章」의 제2수에 그러한 정황이 잘 드러난다.

37 목부용의 원산지인 중국 사천성 성도성은 錦城으로도 불리었는데, 그 이유는 성도성 40리에 걸쳐 심어진 부용이 매년 가을마다 마치 비단을 두른 것 같다 해서 붙여진 것이다. 그리고 부용을 문양으로 수놓아 장식한 장막을 부용장이라고 불렀다. 『御定佩文齋廣群芳譜』卷38, 『成都記』孟後主於成都城上遍種芙蓉, 每至秋, 四十里如錦繡, 高下相照, 因名錦城, 以花染繪為帳, 名芙蓉帳.’

38 牛峴, 「女冠子」其2, ‘錦江煙水, 卓女燒春濃美. 小檀霞, 繡帶芙蓉帳, 金釵芍藥花.’

북쪽에서 보기 드문 희귀한 꽃, 그림으로 그려 붉은 실로 수를 놓아,
초촉땅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없어도 담장 밑과 집안 곳곳에 피어 있다네.³⁹

고려 중기에 왕실에서도 부용장을 사용하였다. 이인로는 금나라 사신을 맞는 연회 중에 지은 시에서 부용장을 가릴 만큼 향연이 자욱한 풍경을 묘사하고 있으며,⁴⁰ 13세기 후반에 관직을 지낸 홍간은 '구름 창, 안개 문에 가을밤 깊어 가는데, 오색 술 달린 귀한 장막에 부용이 향기롭네'라고 하였다.⁴¹ 조선시대 서거정, 이승소, 허균을 비롯하여 정조도 가을비가 그친 풍경을 읊은 시에서 부용장을 언급하였다.⁴²

저녁 비가 구름과 함께 짐차로 견히니, 부용장 따스하여 가을인 줄을 모르겠네.
금압 향로의 연기는 향기가 진동하는데, 두어 포기 국화가 작은 누각에 비치누나.⁴³

그렇다면 송대 회화의 부용문과 자수에서의 부용문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1197년에 남송의 궁정 화원화가 이적이 그린 〈紅白芙蓉圖〉와 1243년이 하한인 북건성의 황승 무덤 출토 자수를 비교해 보자.⁴⁴ 직물에는 자수, 금박, 직조 등의 방법으로 모란, 부용, 작약, 연화, 산다 등이 장식되었다(Fig. 19). 자수 문양에서도 부용 잎의 표현이 도자기보다 실제 부용과 동일하지만, 꽃송이 모양에서 크게 차이가 있다. 자수 부용문이 고려청자의 부용문에 가깝고, 꽃송이 중앙에 연화를 표현한 형태도 청자 퇴주기의 압출양각 문양과 흡사하다.

또 다른 예로 하북성의 동굴 교장에서 발견된 베갯모 자수 부용 문양은 중국 월요, 요주요, 정요는 물론 개성 고려궁성 출토 청자완에서 보았던 도자기 부용문과 비슷하다(Fig. 20).⁴⁵ 전체 구성은 하단에 괴석과 그 앞에 한 쌍의 원앙이 있고, 괴석 위로 부용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 있으며, 사이사이에 봉황, 나비, 새 등을 가득 배치했다. 만개한 황색의 부용 꽃송이에는 3개의

39 司馬光, 『和乘國芙蓉五章』 第2首, '北方希見誠奇物, 筆界輕絲指捺紅. 楚蜀可憐人不賞, 牆根屋角數無窮.'

40 『東文選』 13卷 七言律詩 李仁老 「宴金使口號」, '…… 香煙暗鑣芙蓉帳 ……'

41 『東人之文五七』 卷9 洪僉舍侃20首 洪侃 「嬾婦引」, '雲窓霧閣秋夜長. 流蘇寶帳芙蓉香. ……'

42 李承召, 『三灘集』 卷3 詩 「俠少」, '繡壁文窗紫閣高, 芙蓉帳裏度仙遊'; 「失題」, '芙蓉帳冷露華清, 庭院蕭蕭落葉聲'

43 『弘齋全書』 第2卷 春邸錄2 詩 「雨後」, '暮雨和雲冉冉收, 芙蓉帳暖不知秋. 篝爐金鴨渾香氣, 數本黃花映小樓.'

44 묘주인 황승(黃升)은 1243년 17세의 나이로 사망했으며, 무덤에서는 다양한 복식과 장신구가 출토되었다. 福建省博物館, 『福州南宋黃升墓』 (文物出版社, 1982), pp. 92-131.

45 이 동굴 교장에서는 원대 1361년, 1362년의 문서들과 함께 다양한 견직물이 확인되었다. 孫慧君 主編, 『隆化鴿子洞元代窖藏』 (河北人民出版社, 2010), p. 51.



Fig. 19. <남송대 회화와 자수의 부용 문양 비교> A Comparison of Hibiscus Mutabilis Designs in Paintings and Embroidery of the Southern Song Dynasty; 李迪, <紅白芙蓉圖> I Chök, *Painting of Red Hibiscus Mutabilis* (Left), 1197, Southern Song Dynasty, China, Color on Silk, 25.2×26.0cm, National Museum of Tokyo (National Museum of Tokyo, <https://www.tnm.jp>); <자수 비단의 부용 문양 도면> Arrangement of Embroidered Designs (Right), 1243, Southern Song Dynasty, China, Excavated from Huang Sheng's Tomb in Fuzhou, Fujian (Fujian sheng bowuguan, *Fuzhou Nan Song Huang Sheng mu*, pp. 96, 126, 129)



Fig. 20. <원양호점부용문베갯모> (세부) *Pillow Embroidered with Hibiscus Mutabilis Design* (detail), Yuan Dynasty, China, 20.0×16.3cm, Excavated from Cellared in Longhua Hebei, Longhua Minzu Bowuguan (Sun Huijun, *Longhua Gezidong Yuandai jiaocang*, p. 51)

수술도 표현되어 있다.

자수는 사마광이 노래한 것과 같이 항상 수를 놓은 문양의 밑그림인 繡本이 필요하다. 자수 부용문과 고려청자 부용문이 유사하다는 것은 당시 중국에서도 자수, 도자기, 칠기 등 여러 공예품의 문양 도안을 만들어 사용했고, 시대가 바뀌어도 도안의 형태가 많이 바뀌지 않고 반복적으로 사용했던 정황을 짐작케 한다.

2. 부용의 상징성

부용과 관련된 문헌 기록은 당대부터 많이 남아 있다. 청대에 발간된 『欽定古今圖書集成』 294권 博物彙編 草木典 芙蓉部를 보면, 부용과 관련된 彙考, 詩詞, 기사, 잡록, 外篇 등이 실려 있는데, 그 중에 시사만 해도 당대부터 명대까지 80여 개가 남아 있을 정도로 주요 시제 중에 하나였다. 당대에 지어진 시사는 주로 가을에 개화하는 부용의 식물학적 특성과 만개한 상태에서의 아름다운 경관, 그리고 그 속에서 느끼는 시인의 심미적 감성 등을 노래하였다.⁴⁶ 그러면서 봄꽃인 모란에 견줄 수 있는 가을꽃 부용의 모습이 부각되기 시작했고, 여기에 서리를 맞으면서도 개화하는 특성은 고결한 품성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拒霜’의 특성은 송대로 내려오면 더욱 강조되었다. 송대 歐陽修(1007~1072), 王安石(1021~1086), 蘇軾(1037~1101), 陸游(1125~1210) 등은 모두 목부용을 소재로 한 시를 남겼는데, 서리를 견뎌내는 특성을 대대적으로 칭송하면서 군자의 이미지로 결부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초목이 시들어가는 늦가을에 추위를 이겨내고 꽃을 피우는 목부용의 속성이 문인들에게는 역경에 처해도 좌절하지 않는 정신과 용기의 표상으로 여겨졌다. 예를 들어 왕안석은 목부용에 관한 시 두 편을 「木芙蓉」과 「拒霜」이라는 다른 제목으로 남겼다.

물가에 수없이 피어난 목부용, 이슬이 젖은 붉은색 진하진 않네.

마치 아름다운 여인이 막 술에 취해 애써 거울 들고 화장하려는 듯하네.⁴⁷

⁴⁶ 趙彥昭, 「秋朝木芙蓉」, 李嘉祐, 「秋朝木芙蓉」, 白居易, 「木芙蓉花下招客飲」, 韓愈, 「木芙蓉」, 柳宗元, 「湘岸移木芙蓉植龍興精舍」.

⁴⁷ 王安石, 「木芙蓉」, 「水邊無數木芙蓉, 露染燕脂色未濃. 正似美人初醉著, 強抬青鏡欲妝慵」.

온갖 꽃 지고 난 뒤 홀로 핀 붉은 꽃봉오리, 매서운 서리를 막아내는 듯.

당 현종 탄신일 무렵 사람들의 집에는 부용을 수놓은 주머니가 가득하네.⁴⁸

「목부용」이라는 시에서는 아름다운 여인의 자태를, 「거상」이라는 제목의 시에서는 역경을 이겨내는 부용으로 황제를 칭송하는 당대의 정황을 담고 있다. 사마광의 「和秉國芙蓉」, 소식의 「和陳述古拒霜花」, 육유의 「拒霜」, 楊萬里(1127~1206)의 「拒霜花」 등도 모두 부용에 고결함과 더불어 고난과 역경을 감내하는 이미지를 투영시킨 예에 속하며, 이러한 내용의 시 제목은 주로 ‘거상’이 들어간다. 특히 사마광의 부용 제영시 「和秉國芙蓉」은 국정 운영에 필요한 덕목을 부용에 비유한 것이다. 이 시의 제4수는 ‘홀로 피어 어려운 일이 많지만, 마당에 의지할 국화가 있고, 서리 앞에서 아리따운 자태 뽐내니 붉게 물드는 여느 나무들과 다르구나’라는 내용이다.⁴⁹

부용은 어제화의 배경이나 궁정 화원 화가들도 즐겨 그리는 대상이었다. 앞에서 살펴본 북경고궁박물원 소장인 <부용금계도>는 궁정화가들이 그린 그림에 휘종이 시를 지어 쓰고, 낙관을 찍은 어제화이다. 이 그림과 함께 <瑞鶴圖>, <五色鸚鵡圖>, <祥龍石圖>도 역시 『宣和睿覽冊』에 같이 실려 있는데, 이 책은 상서로운 경물 그림을 통해 국가의 안녕과 휘종 자신의 통치를 아름답게 꾸미는 정치적 도구로 작용하였다. 황색, 적색, 녹색, 흑색, 얼룩진 반점 등 깃털 색이 화려한 금계가 부용 가지 위에 앉아 나비를 바라보고 있고, 그 아래에는 국화가 있다. 휘종은 자신을 오덕을 갖춘 국왕임을 과시하고자 했으며, 시에도 이러한 사상이 그대로 드러난다.

깊은 가을 매운 서리 막아 지키는 우뚝한 관을 쓴 금계로구나.

五德을 다 갖춘 줄 내 이미 아니, 편안함 오리 갈매기보다 한결 낫도다.⁵⁰

우리나라에서 부용에 부여한 상징성도 마찬가지이며, 고려보다는 조선시대 기록에 많이 남아 있다. 안평대군을 비롯해 여러 문인들도 ‘거상화’, ‘경황’ 등을 노래했다. 안평대군이 비해

48 王安石, 「拒霜」, ‘落盡群花獨自芳, 紅英渾欲拒嚴霜. 開元天子千秋節, 戚裏人家承露囊.’

49 司馬光, 「和秉國芙蓉五章」 第4首, ‘後時獨立誠難事, 猶賴階庭有菊叢. 綽約霜前弄姿態, 非如群木萬林紅.’

50 ‘秋勁拒霜盛, 峨冠錦羽雞. 已知全五德, 安逸勝臯鷖.’

당 48詠 중 하나로 거상화를 노래한 이후, 최항, 신숙주, 성삼문, 서거정, 이승소 등은 차운시에서 거상화라는 제목으로 시를 지었다.

성삼문은 ‘목부용을 가장 사랑하노라, 엄연한 군자의 모습이기로. 눈서리도 두려운 바 아니니, 진흙 속에 핀 연꽃인 듯하다’고 하여 목부용을 군자에 비유했다.⁵¹ 또한 서거정은 가을날 붉게 핀 목부용을 요염한 미녀에 견주기도 했다.⁵² 1501년 연산군은 홍문관 관리들에 네 개의 시제를 주고 각축부시를 열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주제가 ‘부용이 가을 강물 위에 살아 있는데, 봄바람을 향하여 피지 못함을 원망하지 않는구나’였다.⁵³ 이처럼 부용에 절세미녀와 군자라는 이중적 상징성이 부여되면서 문학과 미술품의 소재로 사용될 수 있었다.

V. 맺음말

도자기의 문양 연구는 문양 자체에 국한해서는 그 문양의 원류와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관련 문헌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도자기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동시대의 회화, 도자기, 금속기, 석각 등 미술사 전 분야에 대한 포괄적 시각과 대외 교류의 영향까지 검토 대상을 넓혀서 보는 공시적 관점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모란으로 치부했던 목부용이 중국 당대부터 회화, 자수, 도자기, 칠기 등 다양한 분야에 문양으로 꾸준히 사용되었고, 고려청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있었음을 밝힐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부용은 절세가인이라는 상징과 더불어 ‘拒霜’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군자의 고결함, 굳센 의지와 강인함으로 의미가 확장되면서 문학과 예술의 주요한 소재가 되었다.

부용문 청자의 유행 시기는 12세기이며, 그 배경에는 11세기 후반에 재개된 북송과의 교류가 크게 작용하였다. 북송 관장의 직접적인 도래와 많은 양의 중국 복식이 유입됨에 따라 짧은 시간 내에 고려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자수 부용문에서만 보이는 특징적인 요소가 고려청자에서 보인다는 점은 중국 자수 문양을 그린 화본의 존재 가능성과 이를 도자기에 적용

51 成三門, 『成謹甫先生集』第1卷 匪懈堂 四十八詠 拒霜花, ‘最愛木芙蓉, 儼然君子容. 雪霜非所畏, 還似在泥中.’

52 徐居正, 『四佳詩集』第4卷 詠物 拒霜花, ‘西風吹鴈曉來過, 滴露研朱點一窠. 西子捧心矜醉艷, 青娥換骨傲霜華. 影分清冷三秋桂, 香到嬌嬌九日花. 莫把芙蓉強分別, 斬新紅葉自成家.’

53 『燕山君日記』第40卷 燕山 7年(1501) 4月 23日, ‘夜二鼓, 命卽聚弘文館員于西賓廳, 製下七言律詩題四…… 曰: 芙蓉生在秋江上, 不向東風怨未開. 仍出燭一柄曰: 及燭未盡製進.’

했던 정황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12세기 전반에는 정교한 형태의 양각, 압출양각, 음각 기법의 당초문 위주로 표현되다가, 12세기 후반에는 철화 기법에 절지문 형식이 주로 나타나고 점차 절지문이 초화문으로 간략화되는 변화를 거쳤다. 따라서 부용문 청자는 고려 12세기 청자 제작 기술의 발달과 문양의 다변화를 방증하는 근거임과 동시에 부용이 고려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였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 주제어(keywords)_부용(*Hibiscus mutabilis*, 芙蓉), 거상(Resilience against frost, 拒霜), 군자(Confucian gentleman, 君子), 자수(Embroidery, 刺繡), 청자(Celadon, 靑瓷), 화본(Painting manual, 畫本)

■ 투고일 2025년 2월 3일 | 심사개시일 2025년 2월 12일 | 심사완료일 2025년 2월 27일 ■

참고문헌

1. 사료

『稼亭雜錄』
『高麗史』
『東國李相國後集』
『東文選』
『東人之文五七』
『本草綱目』
『四佳詩集』
『三灘集』
『宣和奉使高麗圖經』
『宣和畫譜』
『成謹甫先生集』
『世宗實錄』
『宋史』
『詩經』
『御定佩文齋廣群芳譜』
『燕山君日記』
『爾雅注疏』
『天中記』
『弘齋全書』
『欽定古今圖書集成』

2. 한국어 문헌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中國陶磁』, 2007.
국립중앙박물관, 『부안 유천리 도요지 발굴조사 보고서』, 2011.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高麗靑磁寶物船 태안 대섬 수중발굴 조사보고서』, 2009.
_____, 『태안 마도 1호선 수중발굴 조사보고서 I』, 2010.
김윤정, 「고려청자 문양의 詩·畵적 요소와 도상의 독창성」, 『美術史學』 28,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14.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청자』, 2017.
이희관, 「고려 예종과 북송 휘종-12세기 초기의 고려청자와 여요 및 북송관요」, 『해양문화재』 8,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5.
_____, 「泰安 대섬 出水 高麗靑瓷의 製作時期 專論」, 『한국학연구』 68, 한국학연구소, 2019.

- 임경희, 「태안선 목간의 새로운 관독」, 『해양문화재』 4,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
- 조선관요박물관, 『靑磁의 色形』, 2005.
- 조은정, 「고려 12세기 청자 화훼절지문과 송대 정요 자기의 영향」, 『東洋美術史學』 19, 동양미술사학회, 2024.
- _____, 「청자 海石榴華 문양을 통해 본 고려시대 官樣의 형성과 유행」, 『美術史學』 48,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24.
- 한방임, 「복송시기에 있어 고려·일본과의 회화교류와 문화접변」, 『전북사학』 41, 전북사학회, 2012.

3. 중국어 문헌

- 福建省博物館, 『福州南宋黃升墓』, 北京: 文物出版社, 1982.
- 北京大學考古學系·河北省文物研究所·邯鄲地區文物保管所, 『觀台磁州窯址』, 北京: 文物出版社, 1997.
- 北京藝術博物館 編, 『中國耀州窯』, 北京: 華僑出版社, 2014.
- 孫慧君 主編, 『隆化鴿子洞元代窖藏』, 石家莊: 河北人民出版社, 2010.
- 嚴瑤, 「中國古代文學木芙蓉意象與題材研究」, 南京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21.
- 中國陶瓷全集編輯委員會 編, 『中國陶瓷全集』 7 宋(上), 錦年國際有限公司, 2001.
- 中國陶瓷全集編輯委員會 編, 『中國陶瓷全集』 8 宋(下), 錦年國際有限公司, 2001.
-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 『寶豐清涼寺汝窯』, 鄭州: 大象出版社, 2008.

4. 데이터베이스

- 고려시대사료DB, <https://www.db.history.go.kr>
- 국립중앙박물관, <https://www.emuseum.go.kr>

References

1. Primary Sources

Bencao Gangmu
Erya zhushu
Hongjae chönsö
Koryösa[History of the Koryö Dynasty]
Öjöng p'aemunjae kwanggunbangbo
Qin ding gu jin tu shu ji cheng zong mu
Sejong sillok[The Authentic Record of Sejong]
Shijing[Book of Songs]
Sö Köchöng, *Saga sijip*
Söng Sammun, *Söng Künpo sönsaengjip*
Song Shi[The History of Song]
Tianzhongji
Tongjinimun och'il
Tongmun sön
Xu Jing, *Xuanhe fengshi Gaoli tujing*
Xuanhe huapu
Yi Kok, *Kajöng chöllök*
Yi Kyubo, *Tongguk I Sangguk hujip*
Yi Süngso, *Samt'anjip*
Yönsan'gun ilgi[The Diary of Yönsan'gun]

2. Secondary Sources in Korean

Cho, Ünichöng (Cho, Eunjung). "Ch'öngja haesöngnyuhwa munyang ül t'onghae pon Koryö sidae kwanyang üi hyöngsöng kwa yuhaeng[A Study of Celadon Decorative Motifs: the Establishment and Dissemination of Gwanyang(官樣) in the Goryeo Dynasty]." *Misul sahak* 48 (2024): 263-292.

_____. "Koryö 12-segi ch'öngja hwahwe chölichimun kwa Songdae chöngyo chagi üi yönghyang[12th Century Goryeo Celadon with Hwahwejöichi Designs and the Influence of Song Dynasty Ding Ware]." *Tongyang misul sahak* 19 (2024): 105-137.

Chosön kwanyo pangmulgwan. *Ch'öngja üi saek'yöng*. Kwangju: Chosön kwanyo pangmulgwan, 2005.

- Han, Pangim, "Puksong sigi e issō Koryō, Ilbon kwa ūi hoehwa kyoryu wa munhwa chōppyōn." *Chōnbuk sahak* 41 (2012): 267-292.
- I, Hūikwan, "Koryō Yejong kwa Puksong Hwijing 12-segi ch'ogi ūi Koryō ch'ōngja wa yōyo mit Puksong kwanyo[Emperors Yejong of Goryeo and Huizong of the Northern Song: Goryeo Celadon in the Early Twelfth Century, Ru Wares and Northern Song Official Wares]." *Haeyang munhwajae* 8 (2015): 155-233.
- _____. "T'aeon Taesōm ch'ulsu Koryō ch'ōngja ūi chejak sigi chōllon[A Study on the Period of the Goryeo Celadon Wares Excavated from the Seabed of Daeseom, Taeon]." *Han'guk'ak yōn'gu* 68 (2019): 165-201.
- Ihwa yōja taehakkyo pangmulgwan (Ewha Womans University Museum). *Ch'ōngja[The Splendor of Goryeo Celadon]*. Sōul: kŭ-la-p'ik-ne-t'ŭ, 2017.
- Im, Kyōnghŭi. "T'aeansōn mokkan ūi saeroun p'andok." *Haeyang munhwajae* 4 (2011): 308-332.
- Kim, Yunchōng (Kim, Yunjeong). "Koryō ch'ōngja munyang ūi si, hwajōk yoso wa tosang ūi tokch'angsōng[The Lyric and Pictorial Elements and Unique Icon of Designs on Goryeo Celadon]." *Misulsahak* 28 (2014): 351-382.
- Kungnip chungang pangmulgwan, *Kungnip chungang pangmulgwan sojang Chungguk toja*. Sōul: Kungnip chungang pangmulgwan, 2007.
- _____. *Puan Yuch'ōn-ri toyōji palgul chosa pogosō*. Sōul: Kungnip chungang pangmulgwan, 2011.
- Kungnip haeyang munhwajae yōn'guso, *Koryō ch'ōngja pomulsōn T'aeon taesōm sujung palgul chosa pogosō*. Mokp'o: Munhwa chaech'ōng and Kungnip haeyang munhwajae yōn'guso, 2009.
- _____. *T'aeon Ma-do 1-hosōn sujung palgul chosa pogosō I*. Mokp'o: Kungnip haeyang munhwajae yōn'guso, 2010.

3. Secondary Sources in East Asian

- Beijing daxue kaoguxuexi, Hebeisheng wenwu yanjiusuo, and Handan Diqu wenwu baoguansuo. *Guan tai cizhou yao zhi*. Beijing: Wenwu chubanshe, 1997.
- Beijing yishu bowuguan, *Zhongguo Yaozhouyao*. Beijing: Huaqiao chubanshe, 2014.
- Fujian sheng bowuguan, *Fuzhou Nan Song Huang Sheng mu*. Beijing: Wenwu chubanshe, 1982.
- Henan sheng wenwu kaogu yanjiusuo, *Beofeng Qingliangsi ru yao*. Zhengzhou: Da xiang chubanshe, 2008.
- Sun, Huijun, ed. *Longhua Gezidong Yuandai jiaocang[The Cache of Yuan Dynasty Unearthed at Longhua Gezidong]*. Shijiazhuang: Hebei renmin chubanshe, 2010.
- Yan, Yao. *Zhongguo gudai wenxue mufurong yixiang yu tica'i yanjiu*. Master's thesis, Nanjing Normal University, 2021.
- Zhongguo taoxi quanji bianji weiyuanhui, ed. *Zhongguo taoxi quanji 7[The Complete Works of Chinese Ceramics 7] Song (Shang)*. Taipei shi: Jinnian guoji youxiangongsi, 2001.

Zhongguo taoxi quanji bianji weiyuanhui, ed. *Zhongguo taoxi quanji 8/The Complete Works of Chinese Ceramics 8/ Song (Xia)*. Taipei shi: Jinnian guoji youxiangongsi, 2001.

4. Database

Database of Korean History, <https://www.db.history.go.kr>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s://www.emuseum.go.kr>

국문초록

본 논문은 고려청자에서 모란문 또는 보상화문으로 분류되었던 문양 중에 특정한 형태의 부용문이 존재했음을 규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도자기의 문양 연구는 문양 자체에 국한해서는 그 문양의 원류와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시대의 회화, 도자기, 금속기, 석각 등 미술사 전 분야에 대한 포괄적 시각과 대외 교류의 영향까지 검토대상을 넓혀서 보는 공시적 관점으로 접근하였다. 그 결과 목부용이 중국 당대부터 회화, 자수, 도자기, 칠기 등 다양한 분야에 문양으로 꾸준히 사용되었고, 고려청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있었음을 밝힐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부용은 절세가인이라는 상징과 더불어 '拒霜'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군자의 고결함, 굳센 의지와 강인함으로 의미가 확장되면서 문학과 예술의 주요한 소재가 되어 왔다.

부용문 청자의 유행 시기는 12세기이며, 그 배경에는 11세기 후반에 재개된 북송과의 교류가 크게 작용하였다. 북송 관장의 직접적인 도래와 많은 양의 중국 복식이 유입됨에 따라 짧은 시간 내에 고려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자수 부용문에서만 보이는 특징적인 요소가 고려청자에서 보인다는 점은 중국 자수 문양을 그린 화본의 존재 가능성과 이를 도자기에 적용했던 정황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12세기 전반에는 정교한 형태의 양각, 압출양각, 음각 기법의 당초문 위주로 표현되다가, 12세기 후반에는 철화 기법에 절지문 형식이 주로 나타나고 점차 절지문이 초화문으로 간략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부용문 청자는 고려 12세기 청자 제작 기술의 발달과 문양의 다변화를 방증하는 근거임과 동시에 부용이 고려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였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e Iconographic Origins and Significance of the Hibiscus Mutabilis Motif (芙蓉紋) in Koryŏ Celadon

Cho, Eunjung*

This study aims to identify and contextualize a specific type of hibiscus mutabilis (*puyong*) motif that has often been classified under broader categories such as peony or lotus (*posanghwa*) patterns in Koryŏ celadon. Recognizing the limitations of analyzing ceramic motifs in isolation, this research adopts a synchronic and interdisciplinary approach that encompasses contemporaneous visual materials from painting, ceramics, metalwork, and stone carving, while also considering the impact of foreign artistic exchange. Through this method, the study confirms that the motif of the wooden-stemmed hibiscus mutabilis (*mok puyong*) had been continuously employed across various art forms in China—from Tang-dynasty paintings and embroidery to ceramics and lacquerware—and that its transmission extended to Koryŏ celadon as well. Furthermore, the hibiscus mutabilis, symbolizing not only feminine beauty (絕世佳人) but also resilience against frost (拒霜), came to embody ideals of integrity, inner strength, and noble character—qualities celebrated in both literature and visual culture.

The hibiscus mutabilis motif in Koryŏ celadon gained particular popularity in the 12th century, a development closely tied to the resumption of diplomatic and cultural exchange with the Northern Song in the late 11th century. The direct arrival of Northern Song officials and the influx of Chinese textiles significantly influenced Koryŏ visual culture. Notably, certain formal elements unique to Chinese hibiscus mutabilis embroidery designs appear in Koryŏ celadon, suggesting the use of painted pattern manuals and their adaptation into ceramic decoration. In the first half of the 12th century, the motif was rendered using sophisticated relief carving, impressed designs, and incised lines primarily within arabesque compositions. In the latter half, the hibiscus mutabilis appeared more frequently in iron-painted techniques and reserved slip

* Curator, Goryeo Celadon Museum

designs, which eventually became simplified into abstract floral patterns. Thus, the *hibiscus mutabilis* motif in Koryŏ celadon not only reflects the technical and aesthetic developments of 12th-century ceramic production but also attests to the hibiscus as a meaningful component of Koryŏ cultural identity.